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힐링플레이(주)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평한 숲'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힐링플레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공평한 숲'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설립됐다.

장애인 기준으로 개발된 산림복지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2018년 시각장애 이동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 수행 및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정서적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격 교육을 담당하는 힐링플레이 트리클라이머 센터 및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공평한 숲 연구소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되어 많은 산림 소외계층이 숲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유혜선 대표를 만났다. (편집자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힐링플레이(주) 교육장 전경.

장애인 산림교육 프로그램 등 인식개선 교육 진행
 2023년 제1호 민간 산림복지서비스제공기관 지정

Q.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나?

A. 힐링플레이(주)(대표 유혜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서비스 대상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할당하고 있다.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다소 취약한 농촌지역의 경우, 숲을 활용한 산림여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여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윤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한 숲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A. 국내에서 생소한 트리클라이밍(나무를 활용해 즐기는 레포츠)을 도입해 모든 사람들이 숲과 산에서 마음

껏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유혜선 대표 등이 직접 해외(네덜란드)로 연수를 떠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트리클라이밍 교육과정을 도입해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약 300명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전 국민의 산림복지증진을 위한 산림교육 및 숲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평한 숲'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감각(시·청각)·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전맹학교,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애중복지재단과 협약을 맺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

고, 2019년과 2023년에는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1148명의 시·청각 장애인에게 전문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산림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A. 산림레포츠전문기업으로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진행한다.

이처럼 지역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모습이 여러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산림레포츠사업을 진행하는 타기업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것이 선정 이유라고 느낀다.

아울러, 공평한 숲을 향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모든 참여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A. 산림레포츠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은 전부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수목관리 또는 관련 장비를 다루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평소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도중 급작스러운 결연 발생으로 신규 전문가가 투입되어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체적인 팀워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행히 매년 육성되는 전문가의 수가 많이 증가했고, 힐링플레이(주)에 등록된 전문강사도 늘어나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소됐던 경험이 있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A.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 기업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지역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 농업, 임업, 교육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A. 힐링플레이(주)는 2023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1호 민간산림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더욱 쉽고, 신속하고, 즐겁게 숲의 공익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업무협약, 컨설팅 등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출생아 수, 충북만 증가

전년 대비 1.5%(117명) 증가, 전국 평균 7.7% 감소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북만 출생아 수가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2023년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만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했으며,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 시군 중에는 증평(34.8%), 제천(10.0%), 단양(5.0%), 충주(3.9%), 청주(2.6%)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신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과감한 임신·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충북도는 출생 증가를 1위를 이어가기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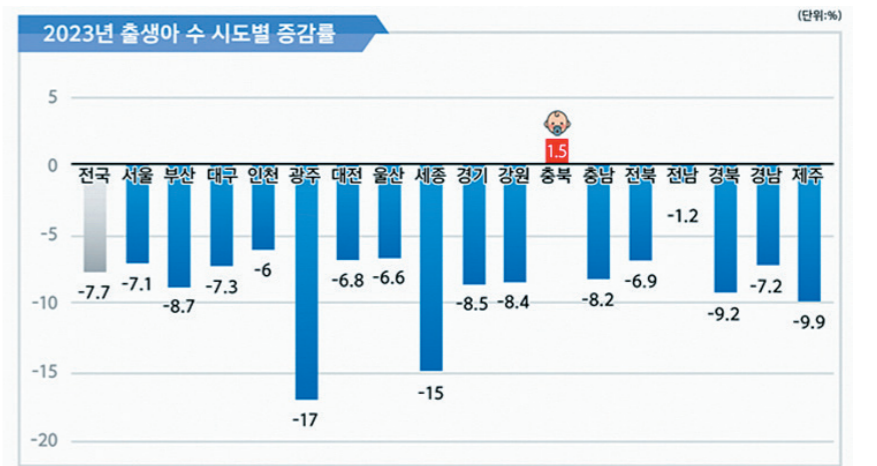
지원 확대 등 난임 관련 사업과 임신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신부 교통비 지원, 임신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올해부터 새로 시행한다.

첫 번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세대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임신부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 임신부 우선 창구와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 및 감면 이용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다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발굴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충북도, 도내 구직단념 180명 지원

충북도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니트청년(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충북도는 작년 이어 2년째로 사업에 선정되었다.

올해는 국비 8억4000만원을 확보해 도내 18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 중 최대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자

립 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참여기간에 따라 도전(5주, 40시간), 도전+I 유형(15주, 120시간), 도전+II 유형(5개월, 200시간)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밀착상담, 자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기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충북도의 위탁을 받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인 (주)잡스(청주시 상당구 소재, ☎043-908-4284)에서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 및 (주)잡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유진선 소장, 유혜선 대표, 이음상 센터장이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받았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 청주대점 / 충북대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청주시, 청년 도약 위해 행정력 집중

저소득 청년 대상 임차료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등

청주시가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삶 전반에 걸친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 청년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자 주거, 일자리, 친화공간, 정신건강, 농업인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거 정책이다. 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1억7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재산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 신청은 올해 3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무주택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미혼 청년에게는 전세자금 대

출 잔액의 1.5% 범위 안에서 연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잔액의 1.2%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다면 110만원까지도 지급된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는 정책도 준비돼 있다. 돌봄과 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정신건강이 위협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토록 청년 마

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청년트랙5959 상담소 등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범석 시장은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춤형 청주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시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중앙정부의 정책은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선착순 14명... 청년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음성군은 지난 15일부터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14명)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소(중

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미혼 청년 농업인이다.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음성군과 충북 도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 총50만원(농업인은 총30만원)이 함께 매칭돼 적립된다. 또한, 기간 내 결혼 및 근속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소(중

개인기업은 31%에서 7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만기 5년인 2023년부터 첫 만기자가 나오기 시작해 음성군에서 만 23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고, 올해도 다수의 만기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외에도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1월 22일부터 신청받아 진행하고 있다.

넓은 집 개선...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주목

빈집 보수해 취약계층 지원, 2월 16일까지 신청

진천군이 낡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개선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진천형 해비타트(Habitat)'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역 군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

은 빈집을 보수해 주거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군은 1976년 미국 변호사 밀러드 폴러 부부에 의해 창설된 봉사단체 '해비타트(Habitat)'가 진행

중인 무주택 가정, 열악한 주거환경의 가정의 주거 문제 해결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3곳을 선정해 각 4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안전성·위생성·입지성·경관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보수된 빈집은 입주자 모집 공

고를 통해 무주택 취약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장기 임대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 개발팀, 산업개발팀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6일까지다. 기존에 추진하던 빈집 철거 지원사업도 이어가며 각 200만원 이내로 20곳에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사업을 지난 10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확대 시행

어르신 결식예방, 공동체 의식 함양

제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사업이 지난 1년간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제천시 등록 경로당 중 사업을 희망하는 217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은 경로당을 거점으로 하여

어르신들의 결식예방,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한 돌봄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년간 대상지를 분기별로 확대하면서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년보다 2만원 인상된 부식비 20인 기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되던 정부양곡에 더해 20인 기준

14포에서 16포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제천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형 노인일자리의 명칭을 '경로당 복지 매니저'로 확정하고 급식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매니저로서 참여하는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2023년 시범운영된 134개소의 경로당을 통해 일평균 21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사업참여자의 98.5%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 만큼 단순 하루 한끼 지원을 넘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지역내 돌봄을 위해 힘을 예견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형 경로당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돌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소외없는 건강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경로당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희망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충주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2세 이상 64세 이하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월 최대 5만원

충주시가 충북에서 최초로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 중인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

해야 하는 2세 이상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벨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이다. 단, 시설입소 장애인과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대소변 흡수용품과 위생용품 구입비의 50%로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043-850-6821)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군,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 대상자 확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단양군이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기존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등이며 올해부터는 고령자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대상자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군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많은 군민이 군청을 재방문하지 않고 여권 수령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미리 살펴 해결하는 감동 행정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복지카드 등 지원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월부터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총 48건이며 70세 이상 43명, 등록장애인 5명으로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단양군, 돌봄AI 반려봇 보급 '확대'

우울증 완화, 안전 돌봄 등 '효과 검증'

단양군이 돌봄 AI 반려봇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완화하고 안전과 돌봄 사업의 새로운 문화 형태로 자리 잡았다. 군은 지난해 '충북 사회적약자 대상 돌봄 AI 반려봇 실증 및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0월

부터 홀로사는 어르신 110가구에 반려봇을 설치·보급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기기 보급 전 로운 문화 형태로 자리 잡았다. 사에서 우울증 지수 비율이 평균 7.3점으로 나타났으나 보급 이후 2차 검사에서 평균 3.9점이 낮아

졌다. 로봇은 응급안전 기능이 탑재돼 어르신이 '살려줘', '구해줘', '나아파' 등과 같은 말을 하면 비상벨이 울리고 관제시스템으로 연결된다. 관제센터는 AI 반려봇을 CCTV로 전환해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하게 된다.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6%를 넘어지면서 돌봄 AI 반려봇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사업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유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증평군, '아이돌봄추진단'으로 문화 확산

온 마을이 아이 돌보는 '증평형 돌봄시스템 구축' 나서

증평군이 아동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돌봄추진단' 운영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15일부터 돌봄활동가, 돌봄홍보단, 돌봄자문단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이돌봄추진단'을 모집한다.

돌봄활동가는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 등 퇴직 공무원 및 돌봄 활동 희망자로 지역 내 돌봄기관에 파견돼 활동할 재능

기부자 50여명을 모집한다.

돌봄홍보단은 이장, 사회단체회원, 기업인 등 200여명을 모집하며, 증평형 365 아동돌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군에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돌봄자문단은 돌봄기관의 대표자, 아이돌보미 등 돌봄 전문분야 50명으로 구성된 군 돌봄사

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추진단'은 3월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재영 군수는 "소중한 아동이 든든한 이웃의 울타리 속에서 관심과 행복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증평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온 마을이 아동을 보살피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추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군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043-835-4811)으로 하면 된다.



아이돌봄추진단 모집 홍보 포스터. 책팀(☎043-835-4811)으로 하면 된다.

옥천군, 2023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 높은 점수

옥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는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노력도,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집행 우수실적, 행복e를 변동알림 처리실적, 긴급복지 집행실

적, 긴급복지 지원 신속 처리율, 핵심요원 활동실적 등을 평가 지표로 종합 심사한다.

옥천군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포상금 400만원은 옥천군장학회와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200만원씩 지정 기탁했다.



옥천군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옥천군,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30만원 지원

만 70세 이상,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옥천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역상품권인 향수OK카드 3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옥천인 만 70세 이상 운전자(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옥천군에서는 지난 2020년

부터 지난 4년간 총 247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을 받았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한다.

인센티브가 도내 최고 수준인 만큼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옥천군청 도시교통과를 방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옥천군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복지, 농업, 행정 등 10대 분야 79건

괴산군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도는 보건·복지, 경제, 문화·체육, 농업·축산, 일반행정, 환경, 소방안전, 식품, 교육 등 10대 분야 79건(괴산군 15건, 충북 64건)이다.

괴산군은 한끼식사(점심식사도우미),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AI통화비서 서비스, 건물번호판 택배배송 서비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은 자부담 완화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귀농인 이주 정착 자금 지원을 가구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도 대상 지원을 확대해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자 중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는 등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www.goo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동 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개원'

치매 노인 70명 입소 가능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지은 영동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이 23일 개원했다. 군 최초의 치매 전담 요양원이다.

이 요양원은 유원대학교 근처에 전체 면적 2천783.86㎡의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지었다.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완공했다.

1층 주야간 보호시설에 40명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고, 2~3층은 70명의 노인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원으로 꾸몄다. 1인 6실, 2인 1실, 3인 6실, 4인 11실 등 모두 24실을 갖췄다.

각층에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면회실, 요양보호사실 등 입소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들어섰다.

특히 물리치료실에서 치료사 등 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지은 영동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전경.

문인력이 각종 전문 장비를 이용해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건물 옥상까지 승강기를 연장 운영해 옥상을 휴식과 산책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수가성재단(대표이사 이재일)'이 오는 2028년까지 수탁 운영한다.

요양원 입소 대상은 의사 소견서에 치매로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한 장기 요양등급(2~5등급) 수급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가성재단(☎043-745-3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 최초의 치매 전담 요양원 개원으로 지역 노인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치매 노인들을 위한 전문 시설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보은군, 저출생 대응 충북도 '우수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확보

보은군은 충북도의 '2023년 저출생 대응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뽑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자체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처

음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출생 대응 시·군 종합평가'를 했다.

평가 항목은 시·군 자체 사업 실적, 민·관 협력 기반 구성, 지자체의 적극성, 저출생 사업의 실효성, 사업의 확산성, 사업의 효과성 등 6개 부문이었다.

군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증가시책 추진단 운영,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귀농·귀촌 지

원, 결혼·출생·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안진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민·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우수지자체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보은군, 청소년 학습능력 향상 '체계적 지원'

학생 유출 방지... 학습지원협의회 출범



보은군학습지원협의회가 19일 보은군청에서 위촉장을 받는 등 출범식을 열고 있다.

보은군이 도시와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역내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도시로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원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에 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군학습지원협의회' 첫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처음으로 출범한 협의회는 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재형 군수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2024년 학

습증진 사업 및 학생들의 재능 발굴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심의했다.

심의를 2024년 학습증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입시 컨설팅 지원, 대학 탐방 등으로 도시와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군내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도시로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다.

특히 군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높이고 잠재된 재능과 흥미를 끌어내어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도 같이 심의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첫 출범한 보은군학습지원협의회를 통해 군내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증진과 소질·적성개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은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70대 이상 노인 20대 인구 추월

충북, 지난해 초고령화사회 포함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세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 대비 11만명 가까이 줄어 4년 연속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 619만7486명을 넘어섰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70대 이상 인구(608만여명)는 20대 인구(641만여명)보다 적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전년보다 약 23만명 늘고, 20대 인구는 22만명가량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뒤집혔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고 평균 수명 증가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

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중 60대(17.19%), 70대 이상(14.24%)의 유권자 비중은 21대 총선(2020년) 대비 각각 2.54%포인트, 1.5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0~50대 유권자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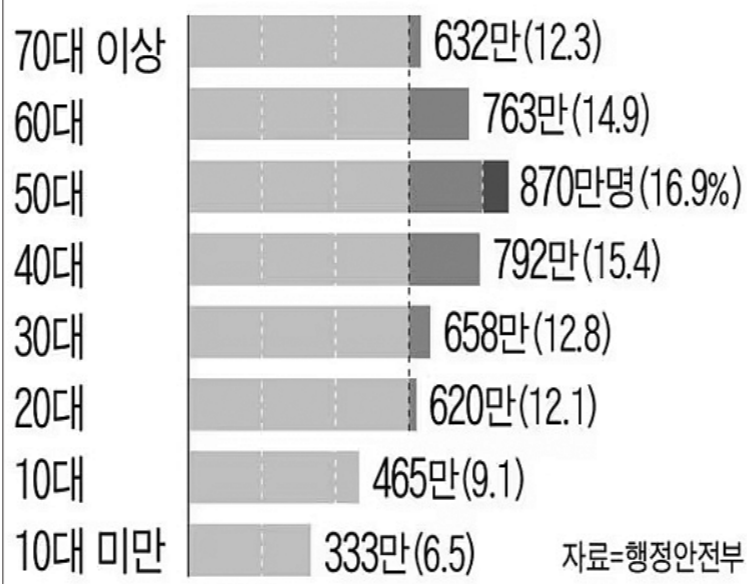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4년 12.7%,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고령사회로 분류됐던 충북과 경남이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포함됐다.

대구와 서울, 제주, 대전 등 나

연령대별 인구 단위: 명, 괄호 안은 비율



머지 8곳은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유일하게 세종만이 고령 인구 비율이 11.0%로 고령사회 기준에 못 미쳐 고령사회에 해당했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전체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부 차관은 "인구감

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해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1월부터 최대 42만4810원 수령

기초·부가급여액, 선정기준액 등 인상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163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3180원에서 2024년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에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2023년 대비+8만원), 부부가구 208만원(2023년 대비+12만8000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준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당부

14세 이전 접종시 횟수 2회로 줄어... 저소득층 여성 등 지원

첫 접종 시기	접종 횟수	백신	접종 간격(첫 접종 후)
12~14세	2회	HPV 2가, HPV 4가	0 - 6~12개월
15~25세	3회	HPV 2가	0 - 1 - 6개월
15~26세	3회	HPV 4가	0 - 2 - 6개월

첫 접종 시기별 백신종류 및 접종횟수·간격.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청은 2024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2011~20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데, 이번 연도 마지막 대

(2006년생 여성,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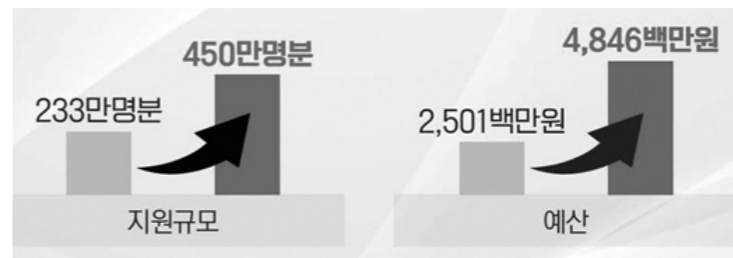
이에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방문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역미 질병청장은 "HPV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학습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을 적극 활용해 충분한 면역력 획득을 위해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HPV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홍보자료를 제작해 질병관리청 SNS(아프지마TV) 등 온라인 매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규모 2배 확대

223만명분에서 450만명분으로 대폭 지원



사업 규모 및 예산 확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졸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

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49만명분에서 지난해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

도(세종, 부산 제외)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였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20만명으로 확대

중위소득 50%이하, 0세에서 17세 아동 가입 가능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약 3배인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

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북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o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명) 중 신체 제

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 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6000여명에서 2400여명 증원한다.

이외에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100도 돌파

모금목표 95억5000만원 돌파... 31일까지 진행 SK하이닉스 큰 기여... "충북도민 온정에 감사"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이 지난 15일 현재 모금목표인 95억5000만원을 돌파하여 100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충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캠페인 모금액인 95억6100만원의 99.9%를 모금목표로 정하여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9일까지 50.5도로 더디게 올라 기부 한파를 우려하는 수준이었으나 다행히 연말 각 시·군에 접수되어 전달된 성금이 집계되고 고액기부들이 쾌척되면서 사랑의 온도가 빠르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기환경 개선(ESG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던 SK하이닉스 성금이 최근 집계되면서 사랑의 온

도를 높이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

1월 15일까지의 성금 내역을 보면 현금기부는 140억3800만원(87.2%), 현물기부는 20억5500만원(12.8%), 개인기부는 25억200만원(15.6%), 법인·기업기부는 135억9100만원(84.4%)이다.

충북모금회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기업 등이 어려워지며 모금이 쉽지 않았다"며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충북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올해도 사랑의 온도 100도를 돌파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언론사, 읍면동 주민센터 성금 접수창구 및 모금회 사랑의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주 상당공원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이 168.5도를 기록했다.



청주청남시니어클럽은 지난 10일 지북동 매장에서 '카페, 온리' 오픈식을 개최했다.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카페, 온리' 오픈

커피·쿠키 등 저렴 판매

청주청남시니어클럽(관장 송무아)은 10일 지북동 매장에서 '카페, 온리'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 날 오픈식에는 지역 내 유관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사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카페, 온리는 청주청남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커피, 에이드 등 음료류와 쿠키 등의 디저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카페, 온리" 참여자는 "새로 단장한 깔끔한 매장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고, 카페를 방문하시는 고

객들에게 정성을 담아 맛있는 커피와 차를 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청주청남시니어클럽에서는 참여자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대비 21% 확대되어 1533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예정이다.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마인드-헬스케어 센터' 기관 모집... 내달 4일까지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강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4년 마인드-헬스케어 센터'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월 4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음성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강동대학교 학생진로상담센터, 음성삼성휴먼시아, 음성금왕단지)의 참여로 지역 유관기관 이용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이 뒤를 이어서 5개의 기관이 모집,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음성군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이면 어느 기관이든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할 기관은 센터로부터 해당 기관 종사자의 정신건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제반 및 정신건강 자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esmind.or.kr) 센터 소식(자료실)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2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2월 2번째 주에 내부 서류 심사를 거쳐 공지될 예정이다.

이강표 센터장은 "마인드-헬스케어 센터 사업이 음성군 내 정신건강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지상담 및 자원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되는 우울감 및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센터(☎043-872-1883)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에 대한 증축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증축 '첫 삽'

올 12월 말 준공 목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흥덕구 1순환

로 438번길39-17)에 대한 증축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마리아의 집은 1989년에 지어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927㎡ 규모로 증축된다.

정부보조금(국·도·시비 포함) 45억원과 운영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의 자부담 12억원

등 총 57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마리아의 집 관계자는 "이번 생활관 증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병실 등 60여명의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입소인의 편안한 보급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립도서관 "똑똑똑, 책 배달왔습니다"

배달서비스 시작... 14곳 확대

청주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책을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2024년 '책 똑똑! 책배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객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게 원하는 도서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3개 도서관(시립, 오창호수, 오송)에서 시범으로 운영했

으며 올해는 청주시 권역별 14개 도서관(시립, 오창호수, 오송, 상당, 청원, 오창, 금빛, 내수, 서원, 흥덕, 신울봉, 강내, 옥산, 가로수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용자는 택배를 통해 1인 5권 이내의 도서를 30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36개월 이하(2022년생~2024년생) 영·

유아를 둔 부모, 결혼이민자, 도서관이 없는 면 거주 주민 등이다.

현재 이용자 모집 중이며, 서비스 희망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권역별 14개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ib-cj@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65세 이상 주민은

신분증 등 출생년도 확인서류,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36개월 이하 영유아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면 거주 주민은 주소지 확인 서류 등이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개별연락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도서 대출 및 반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유선(☎043-201-4083)로 하면 된다.

충북광역자활센터, 설맞이 특별기획전

온라인 스토어 '햇살나들이'

충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안성희)는 충북 12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설명절을 맞이하여 자활생산물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설맞이 자활생산물 특별기획전은 사회적기업간 공동사업 추진 및 자활생산물 판로개척, 온라인 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설맞이 자활생산물 특별기획전은 공동홍보를 카달로그 및 충북자활센터 종합소평물 '햇살나들이'로 진행되며, 더담은 선물세트, 등 우수한 자활생산품을 무료 배송 및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대표상품으로는 HACCP인증을 받은 광역단위 공동브랜드 더담은김(애), 더담아유, (유) 더담세트, ISO 품질인증을 받은 더담

은 누룽지 등 충북의 우수하고 다양한 자활생산품이 있다.

이용방법은 검색창에 '햇살나들이' 검색 또는 유선(☎043-216-0365)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구매 전 상품 무료배송과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스토어 '햇살나들이'로 접속하거나 충북광역자활센터(☎043-298-9112)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2024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된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 → 32%)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월 21만 3000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4000원을 받게 된다.

* 4인 가구 월 21만3000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 인상한 19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 ~ 2.7만원(3.2 ~ 8.7%)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명, 주거급여 약 11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단,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미지원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금지기준*을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 ~ 2.28억원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 ~ 3.64억원 (서울 기준 59.7% ↑)

이를 통해 약 5만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한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 (23) 0세 매월 70만원, 1세 매월 35만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41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한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된다. 첫째아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을 장려한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입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2024년 부부 8만2000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원 → 월 최대 200 ~ 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조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춤형 문화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3회 한도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4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After
지금까지 청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가입하더라도 전년도 소득 확정시 과세연한 여부 심사 비교세 적용기준으로 연 840만 원 한도 적용	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도 과세연한 여부 미검증 청년희망직급 만기일에 대해 비교세 적용요건을 첫 2년간 1,596만 원으로 상향해 일시불 납입 가능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8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After
그동안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상담·신고 번호가 분산되어 안내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109'로 합칩니다.
다 들어줄 게 아픔 1577-0199 1393 1388	109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52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2월 1일**

Before	After
주요하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 명,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문화누리 지원금 1인당 11만 원	지원금 1인당 13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시행일: 2024년**

Before	After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위험예방 및 건강까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9만 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9만 명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5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After
대학생에게 쌀·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인식 확산을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23년 지원 예산 및 규모: 2,501백만 원, 233만 명	'24년 지원 예산 및 규모: 4,316백만 원, 397만 명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9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인 인센티브'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After
지금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인(0~24개월)에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인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04백만 원) 3명, (한인 2명 2명) (한인) 원원 아동당 지원 (추가) 영아인 인센티브 도입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	(04백만 원) 3명, (한인 2명 2명) (한인) 원원 아동당 지원 (추가) 영아인 인센티브 도입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주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교육부

■ 늘봄학교 본격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한다. '24년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린다.

* 지원가구: (23) 8.5만여 가구 → (24) 11만여 가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한다.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확대(3~5년)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 (23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4년) 쉼터+자립지원관(사레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통합되어 전국 가족센터에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가족센터에서 대상별로 가족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편차와 사각지대가 있었다. 2024년부터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여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청소년 양육비 지원 확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시설유형을 가족형태에서 입소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사유도 폭넓게 인정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가 신규 실시된다. 맞춤형 직업훈련(510명), 인턴십·직장체험(340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신년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새로운 도전·과감한 실행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음에 가슴 설레는 순간입니다. 충북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산업 육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새출발, 새충북”의 기초 아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중부내륙시대 등 권리 되찾을 것
환경·산림 규제 완화 역량 집중
의료비후불제 확대 등 복지 강화

이를 위해 먼저, 중부내륙시대 개막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충북의 권리를 찾기 위해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보하고, 공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SOC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환경과 산림 등의 각종 규제를 푸는 데도 정 역할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전담 여행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충북 관광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글로벌대학 30사업 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기록하는 디지털 영상자서전, K-유학생 1만 명 유치,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확대 등 충북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 혁신의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양육비 후불제, 임신부 패스트트랙 등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들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표 도서관, 예술의 전당 건

립 등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AI 과학영농의 원년으로 삼아 충북형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식품유통본부 설립과 해외 스마트 농업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농업으로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충북도민 통합협의회 및 청년브랜들단 운영, 유튜브와 SNS 활용 등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장구를 운영하여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충북안전재단을 설립하고, 도민 맞춤형 재난안전체고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 AI 119신고접수 시스템 및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 설치 등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전통신장 우리 동네 문화 장날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확대, 고품격 복지주택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및 저상버스 추가, 의대정원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과거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라면, 현재 충북도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도는 충북의 밝은 내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실행, 이것이 바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원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가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발전 전인... 충북도정 꼼꼼히 살필 것”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도민 여러분 모두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충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충청권 조광역의회 구성을 이끌어내며 충북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충청조광역의회 성공적 출범 목표
자영업·소상공인 위한 제도 확대
출산·육아 지원해 저출산 막을 것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제12대 충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을 충북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충청권 조광역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추진하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쓰며 충청권 상생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충북의 하늘길을 활짝 열어 충북이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K-바이오스퀘어 조성, 대도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바이오영재고 및 오송 국제학교 설립 등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며 충북 도약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둘째,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지친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창업 활성화와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으로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육아·돌봄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관련 정책을 살피고 지원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

기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후불제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중심의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체계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냉해, 폭염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피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충북의 재해예방시스템은 물론 관련 기관의 협업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며 ‘안전도시 충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이끌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명평가제 도입과 함께 신청사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며 충북도의회 의회다움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예산·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의회에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 번영과 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힘차게 승전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더 높게, 더 크게 도약할 가슴 벅찬 충북의 새 역사를 쓰는데 충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하나로 뭉치는 원년되길”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은 권력과 힘, 행운, 자연을 상징하고 존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전문직 인정 못받는 현실 안타까워”
처우 걱정 없는 근무 환경 조성 기대

아무쪼록 사회복지 가족 모두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해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겸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6년의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모아보니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정제성 찾기와 우리 협의회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에 주력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한참 뒤에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은 우리 사회복지 가족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문적인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아직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 강화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현재의 전문성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전문성에 알파를 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은 우리 사회복지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사회복지 조직을 모래성에 비유하곤 합니다. 모래성은 한 번 툇 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응집력, 결집력이 떨어지는

조직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편 내편 갈라져 정치인들 흉내 내는 행태는 이제 멈추었으면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그런 날이 아니고, 사회복지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뽑는 날입니다.
아마도 후보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사회복지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보자들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약속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이 반드시 약속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수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공염불이 되는 약속환이 반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그 약속환에서 벗어나, 우리 종사자들이 처우 걱정 없이 소신껏 근무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제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6년 동안, 충북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격려와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별 탈 없이 주어진 소임 마무리하고 훌훌하게 행복한 마음 안고 떠나고자 합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달의 법률상식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정의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정의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피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스 사용 등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가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욱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은 행위가 정한 바에 따라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협박(제284조), 특수폭행(제261조), 특수손괴(제369조)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단 1회'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반면, 보복운전은 사안에 따라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운전 시에 침착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사동정

충북광역자활센터, 안성희 센터장 취임



안성희 센터장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안성희 센터장이 1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안성희 센터장은 충북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충북행정국 공동체 협력과장, 단양부군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충북자유무역청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안성희 센터장은 "복지의 중심

자활, 자활분야의 중심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활은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보다 소통을 확대하고 이해를 넓히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문제에 대해 자활부분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회변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충북광역자활센터는 '혁신·신뢰·소통'이라는 비전으로 충북 12개 지역자활센터와 2000여명의 자활사업 참여주민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양군가족센터, 김미정 센터장 취임



김미정 센터장

단양군가족센터는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상담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다문화가정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자녀이

중언어지원 서비스 등으로 건강한 단양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김미정 센터장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자립과 성장을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단양군 가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양군의 다양한 가족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가족 서비스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복지정보 제공

[희망브리지, 2024년 방송 온라인 사례 추천]

■ 지원대상: 의료/주거/재난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방송 및 온라인 모금콘텐츠 출연에 동의한 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18세 이상인 경우, 협의 가능)

■ 사업기간(1분기): 2024년 1월~3월(1차 지원)

■ 지원내용: 의료/주거/교육/생활비 등 최소 1000만원~1500만원

■ 지원방법: 방송출연 및 온라인·오프라인 모금 종료 후, 희망브리지 내부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지원

■ 추천기간: 2024년 1월~12월 (상시 접수)

■ 추천방법: 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 참고: hopebridge.or.kr

[KT&G복지재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상급편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만 18세 이하)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 지원내용: 의료비 500만원 지원(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 등(간병비 제외))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지원절차: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개인 신청 불가)

■ 캄거루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 (만19세 이상) / (수급자, 차상

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성인)

- 지원내용: 의료비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참고: www.ktnwelfare.org

[KT&G복지재단, 취약계층 아동 학습·문화예술 지원]

■ 행복가정학습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 (만7세 이상~만18세 이하)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 지원내용: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1회)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지원절차: 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 문화예술활동비지원

- 지원대상: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참여인원: 아동 3~7명 (담당자 제외의 아동 3인 미만 시설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 (1회)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참고: www.ktnwelfare.org

[한국해비타트, 2024 이케아 코리아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 지원내용: 취약노인을 위한 쉼터, 직업 및 문화 교육, 일자리 지원 공간,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모듈형 컴포트 모빌리티 홀(6평형)) 및 이케아 인터리어 디자인 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2024년 1월~2024년 8월 *

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필요 사업 성과:연간 순 이용자 100명 내외

■ 모집대상: 모듈형 컴포트 모빌리티 홀 6평형이 필요한 노인 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

1) 대지를 소유하거나 영구 임대 가능하여야 함

2) 건축인허가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대지나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 (위탁운영 포함)

■ 신청기간: ~2024.2.7.(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서류 일체 발송

■ 참고: www.habitat.or.kr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도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 참고: https://www.043w.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1 ~ 2.29
전화번호: 043-855-3000

▶ 코팅, 파일제작 등 업무보조
관리센터: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활동기간: 2.1 ~ 2.29
전화번호: 043-237-5544

▶ 목욕서비스(남) 지원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2.29
전화번호: 043-902-9188

▶ 회계 전문상담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2.29
전화번호: 043-216-9810

▶ 이·미용 지원
관리센터: 대소섬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2.1 ~ 2.29
전화번호: 043-881-8890

▶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보조
관리센터: 진천군유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2.1 ~ 2.29
전화번호: 043-533-1177

▶ 초등학생 돌봄교실(정기)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1 ~ 2.29
전화번호: 043-266-476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재능나눔연합봉사단, 쌀 나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재능나눔연합봉사단(단장 김영준)은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일대의 소외이웃 가정을 방문하여 쌀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지 않은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소외이웃을 위해 봉사할 생각이며, 모두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능나눔연합봉사단은 2019

년 12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을 위촉되어 환경개선,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부모급여 받으며,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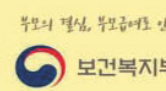
2024년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2023년은 0세 70만원, 1세 35만원(22년생부터 적용)

2024년 부모급여 알아주세요!

- 1.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포(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2.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3.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4.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만평

분노

이창신 www.bokmani.com

